

향토사료 2집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目 次

I. 東草民俗의 概觀	9
II. 東草의 地理, 歷史的 背景	10
III. 東草의 鄉土神祭	12
1) 雪岳祭	
2) 城隍祭 및 龍神祭	
IV. 東草의 說話	15
1) 東草地名 傳説	
2) 權金城의 유래	
3) 울산마위의 전설	
4) 所野八景과 雪岳八景	
V. 東草의 民謠	22
1) 道川메나리	
2) 東草땀소리	
① 지어 소리	
② 다리어 소리	
③ 베끼 소리	
④ 가래 소리	
⑤ 든대 소리	
VI. 東草의 民俗놀이	31
1) 논되호 불꽃놀이	
2) 만천동 나룻메 싸움놀이	
3) 속초 든대질 놀이	
VII. 東草의 歲時風俗과 占卜俗	37
VIII. 맺음말	38

束草의 民俗

張 正 龍

(關東大 教授,
束草文化院 研究委員)

I. 束草民俗의 概觀

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이란 말이 있듯이 風俗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生成되고 생활속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집단구성원간에는 보편적인 유형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時間性과 空間性을 지닌 鄉土民俗은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 풍토 등에 의하여 형성되고 生活樣式이나 方式을 제시하고, 信仰, 遊戱, 慣習 등을 내포하며 精神的 脈絡을 유지시킨다.

束草民俗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山岳民俗과 海洋民俗의 양자이다.

雪岳山을 바라보고 있는 束草地方은 山岳民俗의 오랜 시원을 갖고 있는 山神祭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약초나 산삼등을 캐는 채취인 민속도 남아 있으며, 산악지명전설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또한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條件은 海洋民俗을 잉태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龍神信仰이 강하고 海神祭를 지내 豐漁를 비는 유풍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업노동요인 뱃소리가 여러편 남아있는 것도 특징이다.

山神祭와 龍王祭, 城隍祭를 다 지내며 산과 바다, 호수의 自然的 條件에 의한 民俗文化의 形成은 속초민속의 다양성을 갖추게 하였다. 더우기 대포동 외옹치마을의 목장승과 진대서낭의 立竿民俗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중요한 민속이며, 논뚝호 불꽃놀이, 청초호수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로 최근에 복원되었으며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도 속초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같이 속초지방의 민속은 어느지역보다 다양한 문화 양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방민의 정신문화가 풍요로움을 말해주는 것이다. 李重煥이 「擇里誌」에서 큰 못에 구슬을 감추어 둔 것과 같다는 新羅 花郎들의 道場으로 永郎故事가 서린 永郎湖와 그림 경대의 거울을 연 것과 같다는 靑草湖가 산과 바다의 교량적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곳이다.

그러므로 속초민속의 海洋性은 기억민들의 樂天性과 不屈性에서 나왔으며, 山岳性은 雄渾과 躍動에서, 湖水性은 和平과 冥想의 鄉土文化를 꽃피운 精神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II. 束草의 地理, 歷史的 背景

束草市는 강원도의 東北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東쪽은 東洋에 接하고 南쪽은 雙川에 接하여 양양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北쪽



은 國師峯이 고성군과 接하였고 西쪽은 雪岳山이 경계를 이룬다.

太白山脈의 主峰인 大靑峰이 東으로는 화채봉, 금강굴, 울산암, 달마봉을 隆起시키고 여기서 두 脈으로 나뉘어 하나는 朱鳳山, 靑岱山 등을 이루고 다른 脈은 北으로 뻗어 영금정을 이루고 餘脈이 鳥島에 까지 이르렀다.

河川은 雙川과 靑草川이 있는데 雙川은 雪岳山에서 起源하여 東海로 흘러들어 道門平野를 造成하였으며 靑草川은 달마봉에서 起源하여 靑草湖에 이른다. 이와같이 山脈과 河川이 조화를 이룬 束草市는 본래 三韓時代 三歲國에 속했으며, 高句麗 때에는 束土縣, 新羅 때에는 木束堤縣이 되었고, 高麗 때에는 尺을 설치하여 水軍萬戶를 두어 防備하였다. 朝鮮王朝 때는 大浦營에 속하였으며 靑岱山을 中心으로 남쪽을 道門面, 북쪽을 所川面이라 칭했다. 1912년에 道門面과 所川面을 統合하여 道川面으로 改稱하였고 1914년 먼 폐합때 道門面의 獐項, 上道門, 中道門, 下道門, 大浦, 內沕溜의 6개 리를 병합하여 11개 리로 되었다. 1937년에 束草里의 이름을 따서 束草面으로 고치고 1942년에 束草邑으로 승격하여 桃李源, 梨木, 尺山의 3개 리를 더 두어 14개 리로 개편하였다.

1945년 光復이 되자 38도선 이북이 되었다가 6.25 동란으로 1951년 수복되고 그 해 10월 高城郡 土城面의 沙津, 章川の 2개 리를 편입했다가 束草邑으로 復歸하였는데 1951년 7월 5일 軍政을 실시했으며,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사진, 장천은 고성군으로 넘겨주고 溫井, 靑岱里를 더 두어 桃李源, 梨木, 蘆里, 尺山, 靑岱, 論山, 溫井, 扶月外瓮峙, 大浦, 內沕溜, 下道門, 中道門, 上道門, 獐項의 16개 리를 관할하다가 1962년 11월 21일 束草市로 승격되고 1966년 1월 1일 洞制 실시로 인해 永郎, 束明, 中央, 靑鶴, 琴湖, 靑

湖, 校洞의 7개 洞으로 나뉘었다. 또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高城郡 土城面 章川里와 沙津里가 속초시로 편입 章沙洞으로 改稱되어 13개의 洞으로 되었으며 襄陽郡 降峴面上 福里 일부가 1983년 2월 15일 東草市 雪岳洞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13개 洞으로 되어있다.

東草市는 天惠의 관광자원인 雪岳圈과 어업의 중심지인 東草圈으로 구성되어 觀光과 水産의 고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Ⅲ. 東草의 郷土神祭

지방에 따라 각기 특색있는 향토신제가 있는데 東草地方의 대표적인 郷土祝祭로 자리잡은 것은 雪岳山神에게 제사올리는 山岳祭가 있으며, 東海岸을 접한관계로 어업이 주 생업이 되는데 따른 海神信仰과 祭儀가 있으며, 마을에는 城隍堂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城隍祭가 행해진다.

1) 雪岳祭

雪岳祭가 향토축제로서의 형태를 갖춘 것은 20 여년전 부터 이나 山岳에 제사하여 地方安寧과 行路安全을 기원하던 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山岳地方에서는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雪岳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金富軾(1075-1151)撰「三國史記」雜志 第一 祭祀條에서 볼 수 있는데, 三山五岳 이하 名山大川은 大中小祀로 나누어 제사하였다. 이 중 小祀로 雪岳이 들어 있으므로 국가에서 관장하여 山岳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雪岳祭는 新羅時代 부터 행해졌다고 하겠는데 雪岳山은 옛 기록에도 雪山 또는 雪華山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神山으로 聖域視하였던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花郎徒가 이곳의 名山과 湖水를 찾아

娛遊하였다고 했는데 이 때의 名山은 雪岳임을 알게된다.

「增補文獻備考」卷 23 에는 雪岳의 유래를 적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雪岳山俗號小金剛在西北五十里見麟蹄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聳列石色皆白如雪故名”

이와 같이 흰눈이나 바위색에 의하여 雪岳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雪岳祭는 오랜 역사를 지닌 秘儀型的 山祭로서 山을 神聖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精靈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마을 祝祭로서 정착되어 鄉土文化祭의 구실을 하고 있다. 어느 지방에나 鄉土神祭는 있으나 雪岳祭는 고유한 山神祭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巫覡의 降神을 비는 청좌굿이 들어가고 儒教式的 祝文을 읽어 雪岳山神을 위한 행사를 시작한다. 心理的인 信仰性에 의한 山神祭로서만이 아니라 山岳과 인접하고 生活을 하는 근거지로서 山에 대한 畏敬과 神과 人間이 祭典을 통해 하나가 됨으로서 安寧을 받고 재앙을 막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精神的 根據를 마련하려는 뜻도 담겨있다.

설악제는 權金城이나 雪岳洞 小公園에서 住民들에 의해 치루어 지는데 神木을 배어 봉안하는 降神行事부터 시작하여 祭를 지낸 후 神木을 모시고 속초시내를 돌아 지정된 장소에 봉안하



고 各급 기관장 및 주민들이 朝奠祭를 지내고 무격들에 의해 娛神굿이 12거리 행해진다. 2~3일에 걸쳐 굿이 마쳐지면 送神을 하는데 이때는 雪岳山神이 즐겁고 마음이 흠족하여 東草市의 안녕

과 재해를 막아줄 것을 빈다.

雪岳祭는 山神祭에서 출발하였지만 산악인 뿐만 아니라 어민의 풍어를 빌고 지방민의 安寧을 비는 마을축제로서 자리잡았다고 하겠다.

2) 城隍祭 및 龍神祭

東草市의 城隍祭는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비는 뜻에서 행해지는데 마을마다 祭日에는 차이가 난다. 장사동 성황제는 음력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이루어 지고, 대포동은 10월 초순에 吉日을 택하여 지내고, 외옹치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내며, 물치는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순의 길일을 택하여 두 번 지낸다.

특히 大浦洞 외옹치, 일명 밧독재마을에는 성황제, 용왕제 뿐 아니라 마을 입구에 목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는 특색있는 곳이며, 鳥竿을 장승옆에 세워놓기도 했다.

장사동 성황제의 祝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維歲次乙丑十月癸酉朔初一日 獻官全基城敢昭告于

城隍大神之位伏以 三皇繼天司天可地(中略) 三農豐登 六畜蕃殖 漁夫出漁 滿船歸港 萬祥漸至 三物資興 消災消災 子子孫孫 增福增壽 世世吉昌 官災口舌 虎豹盜賊 消盡火災 驅之遠方 若有疾厄 有凶有吉 睡神所怙 先見夢思 誠雖菲薄 神庶歆格 尙饗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豐登과 滿船, 災厄의 驅逐을 기원하고 있다.

대포동 성황제는 남성황신과 여성황신을 따로 당을 마련하여 모시고 있으며 祭日인 10월 초순에 3일간 제를 올리고 있다. 제물로는 소머리를 반드시 올리는데 말머리라고 칭한다고 한다. 이는 성황신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믿기 때문이라 한다. 해를 걸러 무당굿을 하는데 12거리굿을 하여 마을과 각 가정의 安



대표동 심황제

寧을 祈願한다.

성황굿이 끝나면 龍神祭를 지내게 된다. 龍王神에게 豐漁를 빌고 出漁船의 無事操業을 기원하는데 무당이 燒紙를 올리고 바닷가로 나가 바다에서 죽은 어부들의 혼을 위로하는 오귀굿을 한다.

외옹치 마을의 장승제는 암수 장승을 마을어귀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大祭를 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여 음력 9월 9일에 치룬다. 도가는 金炳國氏의 집으로 정성껏 깨끗하게 준비한다. 외옹치 성황당에는 정면에 화상이 그려져 있으며 위패는 城隍大神之位로 되어 있으며 入口에서 부터 魚糧水積三千海, 雁路雲開九萬天, 門迎春夏秋冬福, 無窮花發子孫鄉, 春光先到吉人家, 建陽多慶, 厄運消滅 등의 글귀를 붙여 놓았다.

IV. 東草의 說話

說話에는 神話, 傳說, 民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초지방에는 지명에 얽힌 傳說이 상당수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몇 편

만 소개한다.

1) 束草地名 傳説

속초는 묶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 지형이 臥牛型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전한다.

2) 權金城의 유래

어느 시대 兵亂이 있었을 때 한 마을에 權狀士와 金狀士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병란을 당하여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피란길에 올랐으나 난병이 뒤따라와 가족을 데리고 피한다는 것이 산세가 급한 깊은 산에 피난하였다. 산정에는 성이 없어 적병이 쳐들어오면 불리한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여유있게 성을 쌓을 수도 없었으므로 급박한 처지였다. 두 장사는 의논하였다. 권장사가 “일이 급하니 오늘밤 안으로 성을 쌓아야 할텐데 어찌하면 좋겠오?” 라고 하니 금장사는 “이 산위에는 성을 쌓을만한 돌이 없고 산 밑에 가서 돌을 가져와야 하오. 왕복하자면 10리가 넘는 길이니 참 딱하게 되었오.” 권장사는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냇가에 가서 성을 쌓을 돌을 던질테니 당신은 산위에서 이 돌을 받아 성을 쌓으시오.” 하였다. 권장사는 산밑으로 내려가 냇가에서 돌을 주워 던졌다. 그것을 밤중까지는 금장사가 쌓고 밤중이 지난 뒤에는 금장사가 던지는 돌을 권장사가 받아서 쌓았

다. 이렇게 하여 이 권금성은 두 장사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었다 하여 권금성으로 부르게 되었다.

3) 울산바위의 전설

울산바위는 옛 문헌에는 天吼山으로 써 있는데 왜 울산이 되었는가 하면 울 후(吼) 자를 썼으므로 우는 산이 줄어서 울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경남의 울산에서 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조물주가 강원도에다 천하의 명산을 하나 만들되 봉우리의 수를 꼭 1만 2천으로 할 계획으로 “각 지방의 상봉중 준초하기로나 웅대하기로 남의 눈을 끌만한 산에게 자신이 있거든 모일 모일모시에 금강산 쪽으로 오면 심사하여 합격된 산은 각기 용모에 알맞은 자리를 정하여 줄터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각처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모여들었다. 이 때 경상도 울산땅에 둘레가 10리나 되며 웅장한 울산바위도 이 소식을 듣고 인근 산봉에게 “나는 본시 암산의 왕자로 자질구레한 너희들 하고 같이 있을 처지가 아닌데 어찌나 이곳에 있게 되어 오늘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조물주가 금강산이라는 천하의 명산을 만든다 하니 내가 있을 곳이 그곳이니 곧 이곳을 떠나겠다”고 알리고 떠나왔다.

태백산령을 걸어오는데 워낙 육중하여 빨리 걸을 수 없으므로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걸었으나 지금의 설악산 울산바위가 있는 근처에 와서 한숨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왕 설바에야 하루를 쉬다가도 수석이 좋은 곳을 골라야겠다”며 골라잡은 자리가 지금의 울산바위 터였다.

이곳에서 하루를 쉬 뒤 다음날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조물주를 만나러 금강산 어귀에 들어서 보니 이미 금강산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래도 암산의 왕이라 자처하고 있는 터이니 “나 있을 곳이야 한자리 있겠지”하고 마음을 달랬다.

조물주를 보고 울산바위가 “보시다시피 내 몸짓이 유난히 육중하여 걸음을 빨리 걸을 수 없어 좀 늦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 웅대한 모습으로나 준초한 용모로나 금강산의 주역노릇을 할만하니 한자리 마련해 주시오.” 하였다. 조물주는 울산바위의 모습을 살피더니 “이만하면 족히 금강산의 주역노릇을 할 만하나 아깝게도 시간이 늦어 앉을자리가 없으니 산중턱에 가서 단역이나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을 듣고 “체면이 있지 내가 이 체통으로 어떻게 금강산의 단역을 하겠오. 차라리 나는 되돌아 가겠오.” 하고 핫김에 분별없이 되돌아 귀로에 향했다. 그런데 돌아오며 가만히 생각하니 울산을 떠날 때 동료 산봉에게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니 조소거리 밖에 아니될 것을 생각하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금강산에 가서 다시 단역자리를 앉겠다고 할 수도 없어 문득 떠오른 생각이 수려한 설악산이었다.

“금강산보다는 좀 못할지 모르나 금강산에서 단역을 맡는 것 보다는 어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며 외설악의 주봉노릇을 할 수 있으니 그 곳으로 가자.” 고 마음을 다지고 앉은 곳이 지금의 설악산 울산바위요 울상을 지었다고 하여 울산바위라고도 한다.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왔다는 전설이 있자 이조시대에 울산의 원님이 설악산에 왔다가 그 전설을 듣고 승려들을 골탕먹여 돈을 벌 생각으로 궁리를 하여 이튿날 신흥사의 주지승을 불렀다.

울산 원님은 큰소리로 “나는 경상도 울산부사인데 어찌하여 내 고을에 있던 울산바위가 너의 사찰림에 와 있는데도 지세를 이제까지 물지 아니 하였느냐? 몇해를 기다려도 지세를 물지 아니하므로 오늘은 천리를 멀다 앓고 내가 직접 울산바위의 지세를 받으러 왔으니 그리알고 세금을 준비하여 바치라.” 고 자못 그 세가 심상치 않다. 그 뒤로 해마다 이 과중한 지세를 물



다보니 사찰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어느 해에는 도저히 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주지승의 시름이 커서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보다 못한 이 절의 동자승 한사람이 주지승에게 “스님은 요즘 무슨 걱정이 있기에 날마다 시름에 젖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소승에게

알려주시면 해결할 방법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고 했더니 “너는 알 것도 못되고 안다 했자 네 힘으로 해결할 도리도 없다.”고 딱 잘라 버린다. 그러자 동자승이 계속 청하자 주지승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울산바위의 지세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이야기를 듣고 난 동자승은 “앞으로 울산에서 지세를 받으러 오거든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게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그뒤에 얼마있다가 동자승이 울산에서 지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상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지세를 물어왔으나 이미 문것은 어쩔수 없지만 금년부터는 물어줄 수 없으니 되돌아 가세요.”라고 딱 잡아 떼었다. 그랬더니 이제껏 물던 것을 왜 올해부터 못무느냐고 대들자 “그 거창한 바위가 우리 사찰림에 와 앉아 있어서 나무 하나 풀 한포기 나지 않으니 도리어 우리의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금년부터는 물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울산바위를 도로 울산으로 옮겨가든지 하세요.”라고 하니 울산사람이 도리에 궁하여 “그러면 네 말대로 울산으로 도로 옮겨가는데 내 요구하는 대로 옮길 수 있게 해주면 옮기고 그렇게 못하면 다시 지세를 받을 것이다”고 하니 동자승이 “좋습니다”고 했다.

“그러면 재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얹어 놓아라. 그렇게 하면 울산바위를 옮겨 가겠다”고 하기에 동자승은 응낙하였다.

울산사람이 돌아간 후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지승이 “너는 일만 복잡하게 하였으니 도대체 어찌할 작정이냐.”고 나무랐더니 동자승은 태연히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 구경이나 하고 계십시오”하고 오히려 태연하였다. 그 뒤에 동자승은 마을 사람들과 절간의 모든 승려들을 동원하여 며칠을 걸려 울산바위를 몇겹 두를 만한 긴 새끼를 꼬게 하여 새끼가 다 되자 사람을 동원하여 울산바위를 칭칭 얹었다. 이 거동을 보고 주지승이 “너는 울산사람들과 약속하기를 재로 끈 새끼로 얹겠다고 하고 성한 새끼로 얹으니 어쩔셈이냐?”

“스님은 그저 구경이나 하고 계십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하고 껏전으로 훌리고는 새끼얹는 일을 보살피느라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뿐이었다. 이윽고 새끼를 다 얹고나서 팽술에 불을 붙여 얹어놓은 새끼를 다 태워버리니 울산바위는 완전히 재로 된 새끼로 얹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울산사람들을 오게 하여 “이제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울산바위를 재로 끈 새끼로 얹어 놓았으니 이제 가져가시오.”라고 했더니 울산사람이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 뒤부터는 다시 울산바위의 지세를 받으러 오지 아니 했다고 한다.

4) 所野八景과 雪岳八景

所野八景이라고 한 것은 그전에 所川面이 있었는데 지금의 속초시 지역이므로 소야뜰에서 본 팔경이라는 말이다.

제 1경은 「舟橋漁火」로 舟橋里에 고기잡는 배의 불이 환하게 비추는 경치이고

제 2경은 「濫井朝露」로 濫井里에는 더운물이 나오므로 그

우물에서 봄이면 김이 안개처럼 올라오는 경치를 말한다.

제 3경은 「靑岱花屏」으로 靑岱山에는 진달래꽃이 많이 피므로 꽃병풍을 둘러친 것 같다고 해서 부르는 경치이고,

제 4경은 「尺山夜枕」으로尺은 옷을 재는 자를 말하므로 옷감을 꿰어다가 옷을 다듬는데 척산의 밤에 다듬이질하는 경치를 말한다.

제 5경은 「蘆洞明月」로 지금의 노학동으로 갈밭이 넓어 갈꽃이 피면 그곳에서 보는 밤의 달이 하나의 경승을 이룬다.

제 6경은 「梨洞白雪」로 이목동의 배나무 꽃이 흰눈오듯 떨어지는 절경을 말한다.

제 7경은 「論山朝煙」으로 논산마을에 아침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로 보기 좋으며

제 8경은 「桃源紅雨」로 도리원 마을에는 복숭아 꽃이 만발하여 꽃이 떨어지면 붉은 비가 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상의 소야팔경은 더러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靑湖磨鏡」 「鷺島歸法」 등이 들어가지도 하고 내용상 「論山朝陽」으로 바뀌 불리기도 한다.

설악산의 八景은 다음과 같다.

제 1경은 「龍飛昇天」으로 설악산에는 폭포가 많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인 大勝瀑布를 바라보면 흰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제 2경은 「雪岳霧海」로 여름이 되면 설악산은 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싸여있는 관계로 구름과 안개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제 3경은 「七色有虹」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아침에 햇살이 반사되어 떨어지는 飛洑에는 언제나 영롱한 칠색의 무지개가 서는 것을 말하는데 선녀가 금시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듯한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니 절경이 아닐 수 없다.

제 4 경은 「開花雪景」으로 겨울이 오면 온 산이 눈 꽃으로 덮인다. 나무에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 꽃이 피어 그야말로 묘경이다.

제 5 경은 「紅海黃葉」으로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무가지 마다 누른 잎에 골짜기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은 풍경이다.

제 6 경은 「春滿躑躅」으로 봄에 진달래와 철죽이 만발하여 산에 가득하다. 대청봉 남쪽에 털진달래꽃의 群落은 봄철 쪽으로 아름답다.

제 7 경은 「月夜仙峰」으로 가을이 되어 밤하늘이 맑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달빛에 흰 봉우리가 더욱 희게 보이므로 온갖 형태의 여인상같이 느껴진다.

제 8 경은 「滿山香蕪」으로 대청봉 서남쪽, 오색 계곡의 북서쪽, 화채봉 능선 등지에 떼를 지어 있는 눈향나무 숲을 지나면 향훈이 코를 찌르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소야관경과 설악관경은 좋은 경관을 기억하고자 만든 이야기로 지명유래와 얽힌 이야기가 많은 것이다.

V. 束草의 民謠

民謠는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이 노래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 데 지방마다 특색있는 고유의 향토민요가 전해온다. 속초지방은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農謠는 양양일대에 많이 남아 있는 반면 漁業謠가 속초일대에는 아직도 불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어업이 주생활이 되었던 관계로 그들의 생활감정이 어업 노동요에 남아 있음이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1) 道川메나리

道川은 현재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인데 이 고장의 농민들이 3·4명씩 짝을 지어 논의 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며 즐겨 부르던 농요로서 고유의 맛을 간직한 메나리이다.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놈매어	매어나주게
다함께논길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입고	아어지고
시원한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동해나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뒀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늦어가네
점심참이	되었으니
지루한	점심때를
몹시도	기다렸다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놈매어	매어나주게

점심하고 질꾼네게	얌얌한데 불러 보세
남쪽남산 불안잠떼	봄이 드니 세 송잎나네
녹수청강 배추씻는	흐르는물에 저쳐녀야
명사십리 꽃이진다 꽃이지면 명년삼월	해당화야 설워 마라 아주나지나 다시피지

(도문동 상도문리 1979.9.5 조사, 오순석
(남·42)· 김남형(59)· 이상도(46) 창)

2) 東草 밧소리

속초는 해양민속이 강한 지역이므로 밧소리가 여럿 전한다. 밧일을 하는 사이 사이에 힘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호흡을 맞추는 구실도 한다. 내용은 노를 젓는 지어소리, 그물을 당길 때 부르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베끼소리,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새롭게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재래식 이동기구인 든대로 일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인 든대질소리도 있다. 소리구성은 앞소리 뒷소리로 선후창이다.

① 지어소리 (노 젓는 소리)

헝 - 헤	헝 - 헤 (뒷소리, 이하 생략)
지어라내자	지어라보자
세월아네월아	가지를말아라
알뜰한청춘이	다늬어간다
이팔청춘	그립도다
간다더니	왜왔더니
울고가더니	왜왔더니
기암기산에	왔던걸음을
발핀잠이나	자구가거라
자구가구나	지어라내자
오동추야	달밝은데
님생각이	절루만난다
요차보자	지어라내지
가자가자	어서가자
이수건너	백로가자
백로건너	어서가자
이화같이	밝은밤은
저달보고	울지를말라
조그마한	자라등에
크다하다는	저달을신고
우리고향	언제가나
지어라내자	지어라보자

(속초시 청호동 4 통 1 반 김동성 (남 · 70) 1986.6.10)

② 다리어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다리어라	내자 (뒷소리, 이하 생략)
다리어라	내자

동지선달	기나긴밤
누웠으니	잠이오나
앉아있은들	님이오나
잠도넘도	아니온다
배가고과	받은밤은
들도많고	니도많다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돌가리고	니가리나
동지선달	설한풍에
손발시려	내못살겠네
원수로다	원수로다
이내팔자	기박하여
이모양이	되었구나
동해동산	돌논해는
저산으로	일몰하고
우리할일이	늦어가네
꽃같은	고운님을
얼매같이	땀어놓고
가지가지	뻘은정은
뿌리같이	깊었구나
적설이	자진토록
춘소식을	몰랐더니
귀옹덕이	천봉난이
와유생심에	수동요라
추야장밤도	길다마는
나만혼자	밤이긴가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긴밤을	짧게셀까

저기가는	노처녀야
나를보고	손을치네
여보총각	잘못봤소
갈길이바빠	활개쳤소
일락서산	해는지고
월출동산	달이떴네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몰렸으나
천하명산	그어디나
장안산을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러나

(속초시 청호동 4통 1반 김형준 (남·72), 1986.6.5)

③ 베끼소리 (그물터는 소리)

어이끼구	내자
베끼어라	보자 (뒷소리, 이하생략)
해도지고	저문달에
고삐없는	소를놓아
그소찾기	망경이다
손흔드는텐	밤에가고
동리술집은	낮에가고
첫날밤에	색시벗기듯

이리저리	베끼어보자
나는 좋네	나는 좋네
처녀 총각이	나는 좋네
귀밑머리	치켜들고
입맞추기	나는 좋네
어이끼고	내자
베끼어라	보자
잘걸렸네	못걸렸네
명주바지	작살걸리듯
대추나무	연걸리듯
연못안	연못안에
연밭따는	요치녀야
연밭은	내따줄게
내 품안에	잠들거라
잠들기는	어렵지않소
연밭따기	늦어간다
이눔을 쥐면	저눔이 나오고
저눔을 쥐면	이눔이 나온다.
이럴적에	기운을 내서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원산내기	찬바람은
손발시려	내 못살겠네
이내 팔자	기박하여
소년고생이	막심하다
우리부모	날 양할때
젖은자리	마른자리
이리저리	가려누워
이런고생	시킬려면

세살적에	중이나켰으면
이런고생	안할건데
푸른푸른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도령만	기다린다

(속초시 청호동 4통 1반, 김형준 (남 · 72) 1986.6.5)

④ 가래소리 (고기 퍼담는 소리)

에라소	에라소 (뒷소리. 이하생략)
가래로다	펴실어보자
이번산대는	용왕님산대
이번산대는	선주님산대
이번산대는	사공님산대
이산대저산대	다걸어실었네
우리배가	배짐이들었다.
사공님은	배물이한다
삼척바다에	들어서니
죽서루나	구경가세
삼척하면	죽서루여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앞바다를	떠나가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나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보니
금강산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산이
구름같이	보이는구나
천하명산이	그아니냐
장전 바다를	떠나보니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
원산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댕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앞이지고	꽃이핀다

(속초시 청호동 4통 1반 김형준 (남 · 72) 1986.6.5)

⑤ 뜰대소리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내고
이럴적에	용기를써라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장사가	지나치며
나를보고	손을치네
손을치는데는	밤에나가구
동네술집은	낮에나가자
자-	자-

(속초시 청호동 4통 1반 김형준 (남 · 72) 1987.6.10)

Ⅵ. 東草의 民俗놀이

東草의 民俗놀이로는 다른지방에서 행해지는 윷놀이,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 농악놀이, 사자놀이 등이 연중 이루어 지나 이 지방의 특색을 담고 있는 민속놀이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논뒤희 불꽃놀이

논뒤희 불꽃놀이가 복원되어 처음 소개된 것은 제 20 회 설악

제 (1985. 10. 1 ~ 10. 3) 민속경연때로, 속초시 중앙동 주민들이 口傳으로 남아있는 속초 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였다.

논피호란 논산 앞에 있는 호수란 뜻으로 썼다고 한다. 속초시 지명에서 論山은 소야팔경에 들어가는 곳으로 논피호는 靑草湖를 지칭한다.

불꽃놀이를 落花遊 또는 落火遊라고 부르고 쓰기도 하는데 논피호의 불꽃놀이는 청초호에 행해졌다. 그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든가 입출입하게 될 때 경축의 뜻으로 논피호에 꽃배를 띄우고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연 3일 동안 밤을 새우고 축하연을 베풀게 되는데, 이때 널판지에다가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으므로 불꽃놀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불꽃놀이를 할 때에 이를 구경나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흥겨워하고 주민들도 뚝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을 베풀었던 것은 선정을 바라는 지방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새로 부임한 지방관에게 관민일치의 우의를 보여 주었으며 아름다운 청초호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던 것이다.

청초호는 「增補文獻備考」에 雙城湖로 기록되어 있는데 둘레가 20 리이며 水軍萬戶鎭을 두고 兵船을 정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해양기지의 구실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피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이조말엽으로 청초호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뒤부터는 위험하다고 폐지하였다고 한다.

논피호 불꽃놀이가 최근 재현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청초호를 잘 가꾸고 이러한 민속놀이를 계속 유지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때 속초의 민속놀이는 재평가될 것이다. 아울러 청초호를 美港으로 가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람선을 띄우고 불꽃놀이를 한다면 또한 속초의 명소가 될 것 같다.

2)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만천동의 나룻배 싸움놀이가 선보인 것은 제 2회 江原道 民俗藝術競演大會(1984. 6. 18 ~ 6. 19)로 金鍾達 향토사학자에 의해 발굴 소개되었다. 口碑傳說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숲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숫룡이 죽고 말았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한다. 그 후에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때에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싸움에서 진 마을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



재현되고 있는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을은 풍어와 대풍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도 하며 놀았다고 한다.

만천동의 나룻배 싸움놀이는 다른 지방에도 있는 민속적인 兩派競逐戲로서 石戰, 줄다리기, 車戰, 木牛戲, 龍馬戲 등과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종의 豐饒祭儀로서 암수의 龍을 만들어 偏戰을 함으로서 풍어를 기원하는 뜻이 강한 것으로 미루어 해양민속의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는 龍船戲의 새로운 자료로서 중국의 단오때 행해지는 龍舟競渡와 같은 의미를 지닌 민속놀이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속초 든대질 놀이

든대질놀이는 제 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987. 6. 27 ~ 6. 28)에서 선보인 속초시의 출품작이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내리는 일을 ‘든대질 한다’고 하는데 든대는 일종의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서 ‘드는 대’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질’이란 행위의 뜻을 가진 ‘짓’과 같은 말이다.

든대질놀이는 노동요가 곁들여진 놀이로서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항구가 없는 낮바리 모래사장에서 주로 하는 재래식의 이동방식으로 선박을 옮길때 하는 행동을 놀이화한 것이다. 배를 만들면 船主는 재물을 준비하여 都沙工과 허리도리(선소리꾼)을 불러 고사를 지낸 후 든대질을 하여 배를 처음 물에 내리는 ‘설망’을 하게 된다.

속초든대질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기(만선기) -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2. 고사 - 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허리도리도 같이 곱



祀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초·향·시루떡·포 등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3. 액막이 - 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包막이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로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다. 불을 袂禳力을 지냈다고 생각하여 불에 의한 呪術的 행위가 많은데 禳疫의 뜻도 있고 生生力도 가지고 있어서 풍어를 빈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

4. 비나리 - 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그 내용을 일부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
조수타고	경세경년에

오늘날	속초시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강한지종과	
비럼으로	바람주고
백철금	되로내게
이제불통	하옵신후
각기	위엄하니
배를타고	다스리고
도로구주	돌아들제
동남풍을	빌어내어
주유로	화공하여
배아니면	어이하리요
도연명의	귀거래요
장한의	강들리요
종일위지	소여하여
지국총	어사화로
어부의	즐김이요
오월이니	채련주오
상고선이	그아닌가
상고로	위엄하여
포박서남	다니더니
각성받이	어부들이
남해신	축융이며
북해신	웅강이며
일채동감	하옵신후
해약으로	인도하여

5. 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피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6. 설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들며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7. 농악-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으나 뱃걸립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악대들이 배에 올라가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이밖에는 속초의 민속놀이에 드는 것은 獅子놀이가 있으나 威鏡道 北靑獅子놀이 無形文化財 15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줄이기로 한다. 그러나 人間文化財인 김수석(남·79)씨가 속초시에 살고 있어서 대보름날에는 속초에서도 사자놀이가 행해진다.

속초시에서 청호동은 함경도 이주의 失鄉民들이 많은 관계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자놀이를 한다고 한다.

Ⅶ. 束草의 歲時風俗과 占卜俗

속초의 세시풍속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청초호의 얼음이 언 것을 보고 새해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다. 이것을 용갈이 또는 龍耕이라고 하는데, 용이 논을 갈아 놓았다는 뜻이다. 겨울에 청초호에 얼음이 얼면 그 해에 농사가 잘되겠는지 못되겠는지를 미리 점친다. 즉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 엇갈이로 갈아놓았을 때는 흉년이 드는데 남북으로 나누어 길흉과 풍농어

를 점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洪錫謨의 「東國歲時記」(1849년) 11월초에 龍耕의 풍속을 적고 있다. 참고로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湖西洪州合德池每年冬有龍耕之異自南而北縱而簿岸則歲禳自西而東徑斷其腹則荒或東或南或北橫縱不整則荒禳半農人推之來歲輒嶺南密陽南池亦有龍耕以驗年事」

洪錫謨가 東草의 靑草湖 龍耕을 당시에 듣지 못하여 「東國歲時記」에는 빠졌는지 모르나 이러한 풍속이 속초에 전한다는 것도 민속연구의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외에 日氣占이나 夢占中에서 어업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한 것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갈매기가 날개를 불에 적시면 비가온다.
- 설악산에 구름이 끼면 동풍이 분다.
- 군사는 깃발을 보고 뱃사람은 구름 말을 본다.
- 꿈에 송장을 보거나 산에 가서 술잎을 한 짐 지고 오면 풍어가 된다.
- 꿈에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면 만선이 된다.

이외에 금기로 생각하는 것에는 뱃일을 하러 가기 전에 길에서 여자가 앞을 질러가면 나쁘고 소변을 보러 가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서 물동이를 양손으로 잡고 가는 여자를 보면 길하다고 믿는 것 등이 있다.

VIII. 뱃음말

이상에서 간략하게 속초민속의 전반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았

다. 郷土民俗의 研究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바로 郷土人의 삶의 자취이며 生活哲學이며 精神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속초민속의 개관에서 밝힌 바 있듯이 속초지방은 민속의 다양한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며 급속한 현대화의 물결속에서도 아직까지 훈훈한 전설이 남아 있으며, 산악민속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어업요가 남아서 불리고 있어 해양민속의 보고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존의 잔존민속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라져 가거나 변모해 갈 것이므로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작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소멸되는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악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므로 이를 정점으로 내고장 문화의 소중함을 계속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응해 준 속초주민들과 자료제공을 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속초민속의 완벽한 後稿를 기약한다.

〈 참 고 문 헌 〉

- 束草文化院刊 「束草文化」第1~3輯, 1984~1987.
崔承洵外 「太白의 說話」下, 江原日報社, 1974.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 2~4, 束草市 襄陽群篇, 1983.
崔琳圭, 「花郎과 永郎湖」束草文化院 郷土史料 第1集, 1985.
束草市 統計年報, 1986.
任東權, 「한국의 민속」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金富軾, 「三國史記」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洪錫謨, 「東國歲時記」外 多數

束草의 民俗

1987年 12月 10日 인쇄
1987年 12月 20日 발행

발행처 : 束草文化院
발행인 : 鄭 鍾 勳
편집인 : 束草文化院 부설
 郷土史연구회
제작처 : 푸른 기획
